서울 한가람고등학교 - 미래 지향적 校舍 설계

한가람고등학교가위치한서울목동아파트 단지는 주변이 깨끗하고 조용하여 교육 환경이 우수하고 학생들의 진학률 또한높다. 이학교는21세기이후에나설립이가능할것으로예상되었으나조건이성숙되기전인1997년에개교하면서사회의주목을받게되었다.

당시 서울 지역의 평준화 정책과 법적인 제한으로 인해 일반계 고등학교로 규정되어 주소지에 따라 배정된 학생으로 신입생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가운데서도 한가람 설립의 바탕이 된 교육과정과 학교의 운영 체계를 공급자보다 수요자를 존중하여 구성하며,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맞추어 보다 유용한 교과들을 과감하게 도입하였다. 한가람의 길지 않은9년역사는이러한정신과한가람이 처한 교육 현실 사이에 끊임없이 형성된 전선(戰線)에다름아니다.

현재대부분의학교에서는7차교육과정을수행하면서도전체학생을학년으로 구분하고, 같은학년내에서몇개의패키지로 나누어진 교육 과정을 선택 기준으로 하여 집단으로 학급을 편성한다. 동일한 크기의 교실에 교과의 특성상 별도의 시설이 필요한 특별 교실이 있으며 교사(校舍)는교실과복도의직렬형태로서상하의계단으로연결되어있다. 또한, 교사형태도-자형, ㄷ자형, ㅁ자형, ㅂ자형등으로 연결시킨 것이 1990년대까지의 학교건축모형이었다.

그런데 1997년 한가람고등학교의개교과정에서한학년당6학급밖에되지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시설로는 학생들의 교과선택을위한교육과정 운영이어렵다는것을알게되었다. 이에따라한가람고등학교의 설립 목적인 학생의 교과 선택권 보장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새로 신축하는 교사는 교과 과정을담을 수 있도록 탈바꿈해야 했다. 3년여에 걸쳐 여섯 차례의 설계가 이루어지는 등 시행착오 끝에 지금의 한가람고등학교 설계가 완성되었다. 이학교가 신축 건물로 이전하여 3년이 지나면서 학생들과 교사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으며 교사(校舍)에 대하여 자부심과 애정이 남다르다.

교과 과정에 충실하도록 교사 설계

병원도 외과, 내과, 산부인과 등 여러 종류가 있어 그 분야의 전공의가 진료하듯학교역시교육을아는건축가(건축사)가 설계하도록하면 보다내실있는설계가되지않을까? 이러한전제아래한가람고등학교는 교과 과정에 충실할 수 있도록설계되었다.

먼저, 신축 교사의 교실은일반 강의실과 교과 전용실로 구분하였다. 일반강의실은다섯가지크기로나누었다. 보통크기의 중형(8×8m)을 중심으로 대형(8×12m), 소형(8×4m)을 기본으로 하되 그 외 학생 수 80명에서 1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 1실, 한 학년 360여 명을 수용할수있는계단식강의실겸강당을구비하였다. 교과 전용실은 사회, 과학, 컴퓨터, 음악, 미술, 체육, 무용 등의 교과 운영을 고려해 각각 교실의 크기와 평면을 달리하였으며, 모든교실과 시설은 복도에 학생 개인 사물함(30×60×90㎝)이 놓여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각층별로 남쪽과 북쪽에 각각 보통 교실 1실 규모의학생 로비를설치해학생이동에 불편함이없도록배려하였다.

도서실, 체육관, 미술실, 음악실, 식당, 강당등은방과후방범장치를가동한후

에도 학생들이 남아 활동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분하여 차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동 통로와 출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각 층별로 학생 로비에 제일 가까운 곳에 교사 연구실이 위치하도록 하여 항시 학생들과 교사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교장실을 없애고 회의실을 두었으며, 행정실은 교무행정과 서무행정이 통합되도록 하였다. 중앙 현관 옆에는 전시실 겸 로비를 만들어 학부모 및 학생 면담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교사들이 항상 교재물을 준비하고 자율적으로 인쇄할 수 있도록 디지털 인쇄기 및 복사기 설치 공간을 별도로 구성하였다. 특히, 개방된 주방이 딸린 330여 규모의 식당과 학생 서점 및 문방구, 청소년 카페, 옥상 공원 등을 구비하여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학업 외에도 모든 실생활이 용이하도록 배려한 것은 자랑할 만하다. 나아가 먼지, 공해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로에 인접한 곳을 운동장으로 하고, 교실과 운동장 사이에는 녹지공간을 조성하였으며, 자연채광을 건물 내부로 끌어들이기 위해 천창(天窓)을 내어 전동식으로 창문을 개폐하도록 하였다.

건물 외관은 내부 면적을 넓히고 방열효과를 높이며 도색이 용이한 외벽 단열로 하였다. 애초 지상 3층, 부분 지하 1층(지하 벽의 외부 공간을 확보해 실내까지 빛과 환기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음)으로 구상했으나 7 · 20 교육여건개선계획으로 인하여 부분적 4층으로 증축하였다. 특히, 일반 강의실, 교과 전용실, 강당, 체육관, 도서실, 식당, 학생 복지 시설 등이 모두 한 건물 내에 배치되도록 하였는데, 단공간 구분과 출구를 별도로 하여 방과 후에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각고 끝에 설계안을 확정하면서 백년을 내다보고 교과과정이 변해갈 것을 예측하여 활용이 용이하도록 가변적으로 대처하였다.

학생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학교여야

한가람의 가장 큰 자산은 교육 과정을 담을 수 있는 교사(校舍)이다. 지난 9년간 우리나라의 어느 고등학교에서도 흉내내지 못할 만큼의 고민과 시행착오가 녹아 있으며, 이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다. 특히, 이동수업에 적합한 평면구조를 갖추고 있고, 학생들의 선택에 의해 다양한 크기의 수업 집단을 수용할 수 있는 여러 규모의 교실이 갖추어져 있어 미래지향적이다. 이처럼 교과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고 다양한 선택을 수용할 수 있는 시간표 및 학사운영은 2002년부터 시작된 7차 교육과정에서 수많은 다른 학교들의 참고 사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7차 교육과정이 후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쾌거라 할 수 있다.

또 하나의 큰 자산은 학교 분위기이다. 개교 당시 한 학년 당 6학급 편성으로 작은 학교, 익명성이 제거된 학교를 추구했으며, 학생 활동에서 학생의 다양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

이제 한가람고등학교는 학교를 설계하는 건축가와 학교 시설 관계자들의 필수 벤치마킹 장소가 될 정도로 유명해진 학교로 부상했다. 그러나, 평준화 정책으로 인해 한가람이 미래의 새로운 학교 모습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학교로 발돋음하는 데는 아직도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다. 다만, 분명한 것은 한가람을 이끌었던 정신이 건재한 이상, 한가람이 추구하는 학교 역시 학생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학교일 것이라는 점이다.

옥상생태정원.

사물함이 설치된 라운지.

계단식 강의실.

"아이들이 원하는 교과를 개설하고 선택하게 하며, 그들에게 필요한 교육 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연구하는 교사들이 있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학교를 운영하면서 깨달은 것은 '아이들이 가장 현명하다'는 사실이었다"라는 이옥식 교장선생님의 말이 사뭇 가슴에 와닿는다.

정관영
충북교육청 건축사무관(공학박사)